

제2편

삼계농장 시설 분석 및 수익성 분석



조현성 이사
(주)하림

1. 서론

지난 무더위가 시작되기 7월 중순경 전북 익산에서 삼계 75,000수를 사육하는 정 사장님을 만났다. 필자가 20년 전 최신타 시설이라며 육계 50,000수를 자동화 투자를 통해 육계사육을 선도했던 분으로 현재 내년이면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갖고 삼계 사육을 하고 있었다.

육계를 사육하던 분이 왜 삼계를 사육하게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동안 안부도 나눌 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년전 육계 계사를 투자하던 시절에는 평당 10만원 정도 투자되었고 그 때만 해도 과감한 투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주변 농장들이 하우스형 계사에 열악한 시설로 여름철에는 더위에 의한 혹서 폐사, 겨울철에는 추위에 의한 혹한 폐사(질병 폐사 등)를 지켜보던 터라, 제대로 투자해 보자는 심사였고 그의 판단은 적중해 주변 농장 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 특히, 자동화를 한 덕분에 많은 논, 밭농사를 아내와 같이 닭 사육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사육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양계사업과의 만남으로 수익을 내어 큰아들이 결혼하고 시내에 주유소를 내줄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주변에는 많은 농장이 시설현대화사업을 기반으로 투자하여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육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고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도 늘어나면서 육계 사육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사육이 편리하고 질병에 강하다는 삼계 사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농장은 현재 삼계 B, C 등급 시설로 분류되어 무창 형식이 아닌 유창 형식의 환기 방법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갖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림 1〉 전북 익산 삼계 농장 전경

하지만 겨울 혹한기에는 연료비 걱정도 문제이며, 여름철 한철이 끝나면 휴지 기간이 길어져 입추가 늦어지면서 좋은 환경에서 사육하지 못하는 것이 삼계 사육농장임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가을철에 휴지기가 길어 독축도 많

이 했지만 전국적 삼계 수급문제는 조급함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쉬어 가는 여유까지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한다.

이 농장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육계' 현대화 계사를 소유한 50세 B농장 사장님은 연간

〈표 1〉 농장 수익 구조

계사형태	갓쇼-하우스, 유창	계사 평수	880평
연간 입추	280,000수	평당 수수	85수
농장 사육 횟수	4회전	수당 수익	320원
연 조수익	90,000,000원	연 순수익	60,000,000원

조수익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B농장에 비교할 때 수익은 45% 수준이며, 육계는 7회전을 하고 있어 삼계의 경우 사육의 기회가 적어 수익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에서 소개한 정 사장님 농장은 사실 시설 감가비용이 없어 큰 욕심이 없다. 농촌에서 이 정도 수익에 감사하다고 한다.

현재 논농사는 힘이 들어 세를 내주고 있다. 사장님 내외가 열심히 하면 농촌에서 이만한 일이 없다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필자가 넉지시 현대화 계사를 다시 투자하여 시설을 업-그레이드 하는 재투자를 제의했더니 손 사례를 치신다. 이 나이에 투자하여 빚쟁이는 되기 싫다고 하시면서, 자식들이 이업을 같이하고자 한다면 투자를 고려해 보겠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고 하신다. 무허가 건물로 지어져 새로 투자하려면 허가 과정과 주변 민원으로 이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적인 삼계 농장들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육계와 비교한 수익성을 분석하여 현재 처해 있는 삼계 농장들의 미래에 다가올 상황을 예견해 보면서 농장에서의 대책들을 생각해 보자.

2. 본론

예전에는 가축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무럭무럭 자란다고 선배들에게 들은 기억이 난다.

이 이야기는 농장주의 성실함이 수익을 가져다주고 시시 때때로 농장에 들어가 가축을 살피고 돌보아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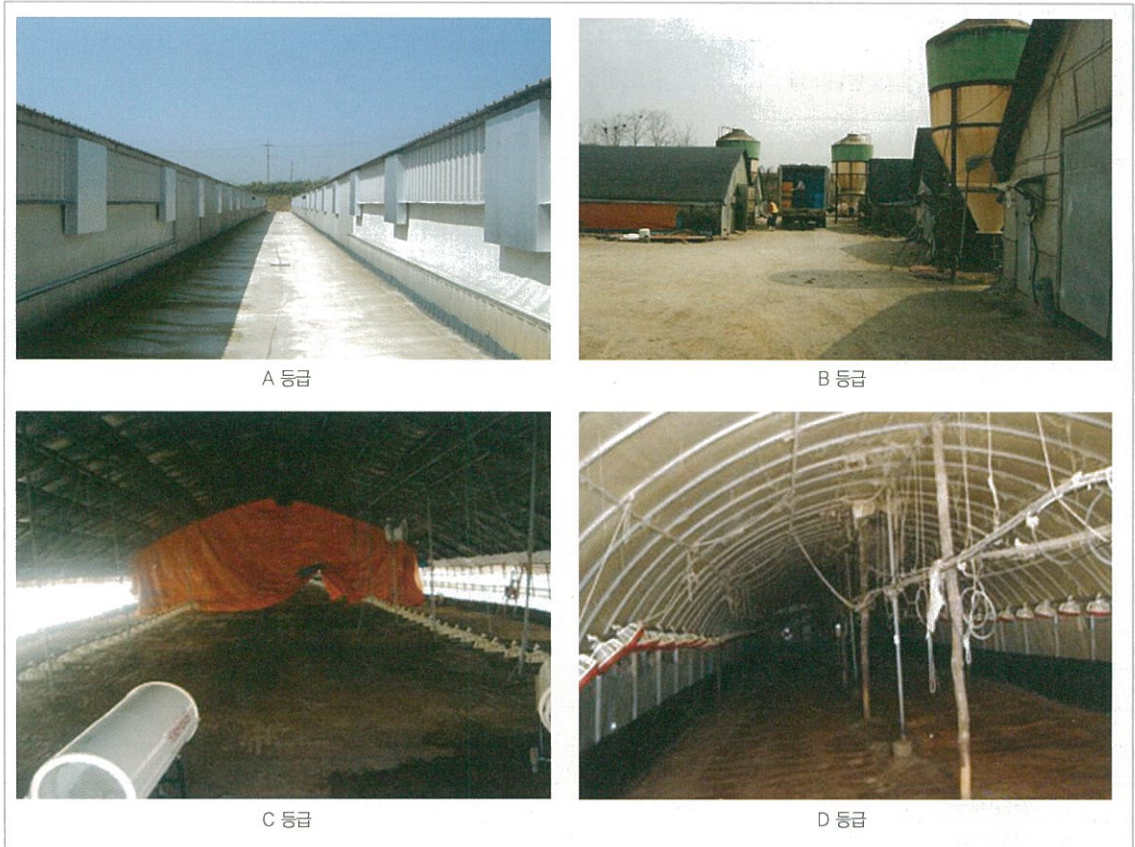
하지만 현재 현대화 장비로 무장한 젊은 농부는 시설 현대화와 디지털로 무장된 시설로 관리하면서 농장의 시설 관리가 중요하며 농장내부에 들어가지 않아야 좋은 품질의 닭이 생산된다고 믿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설이 닭을 사육하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신규 무창 계사로 삼계 사육을 하는 농장들을 종종 본다. 자의 건 회사의 여건에 따라 여름철에는 삼계를 사육하게 된다.

가. 전국 삼계 농장 현황 분석

전국적으로 500여 농장이 삼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 7~8만수 사육을 하고 4회전을 사육하고 있다. 북 기간에는 삼계를 키우고, 비수기에는 육계를 키우는 농장도 100여 농장이 관여하여 수급에 맞도록 움직인다.

사실 핵심적 문제는 C, D급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장들이다. 이 농장들은 시설이 열악하여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육계가 발전하던 하우스형 계사이며, 토종닭 사육 및 개인 닭 사육 등 안정적 사육을 하지 못하여 이동성이 강하여 안정적인 사육 회전을 하지 못한다.



〈그림 2〉 삼계 농장 등급 모형

시설 또한 무허가 시설에 관리자의 고령화 등 총체적 문제가 숨어 있고 투자에 대한 비전이 없어 계절적으로 사육에 참여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삼계 품질에 많은 영향을 주어 도계장에서 비품을 만들어 내던지 질병에 노출될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나. 육계와 삼계의 농장 수익 비교

육계 농장과 삼계 농장의 수익을 비교 평가

해 보고 삼계가 안고 있는 현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표 3〉의 자료는 1,000평 계사를 투자한다고 가정 시 육계 및 삼계 농장의 수익 모형을 시뮬레이션하여 분석한 자료이며 운영에 대한 기준과 투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농가 수익 모델을 분석한 자료이다. 농장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여 이해하기 바란다.

〈표 3〉에서 보면 삼계수익의 가장 키포인트는 투자비용이 육계보다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2〉 농가 수 및 회전수

구분	농가비율	규모(천수)	연간 회전수	
			육계	삼계
A 등급	16%	5,600	6.5~7	5
B 등급	23%	8,050	6	4.5
C 등급	23%	8,050	5	4
D 등급	38%	13,300	4	3

〈표 3〉 1,000평 투자 기준 수익 모형

평가 항목	육계	삼계	비고
투자비(천원)	600,000	300,000	시설기준
토지(천원)	100,000	100,000	
사육 평체(kg)	1.60	0.85	
회전율(회)	6	4	
평당 입추(수)	65	90	
수수료(kg/수)	300	300	
약품비(수)	50	30	
연료비(수)	40	30	
전기료(수)	8	8	
갈짚비(수)	24	15	
상차비(수)	10	10	
감개(수)	10	10	
기타(수)	4	4	
1회 조수익(천원)	29,640	27,000	
연 조수익(천원)	177,840	108,000	
비용 합계(천원)	56,940	38,520	
순 수익(천원)	120,900	69,480	

〈표 4〉 육계, 삼계 기초 비교

평가 항목		육계	삼계
수익성	kg/수당	300~400	300원
회전율	회	6~7	4
평당 입추	수	60~65	90
생산지수	포인트	290~300	130
FCR	포인트	1.60	1.82

삼계 특성상 사육 계절 지수가 시기적으로 높아 농장의 회전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전업을 하고 있는 농장은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 부업으로 농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삼계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주기적인 입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삼계를 사육하는 90% 농장이 투자가 20년이 넘어 시설에 투자에 대한 감가비가 없다.

또 하나의 매력은 삼계가 육계보다 질병에 강하여 사육이 쉽다며 선호한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단열이 열악하여 연료비가 과다 사용할 수 있고, 삼계 특성상 사육 계절 지수가 시기적으로 높아 농장의 회전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전업을 하고 있는 농장은 자금 흐름이 좋지 않아 부업으로 농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삼계 투자를 이끌어 내려면 주기적인 입추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결론

최근 현대식 도계장에서 동물 복지를 고려한 도계방법을 채택하면서 농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동물복지 도계 시설은 그동안 '어리장'이라는 철제 시설로 상차했으나 최근 플라스틱 모듈박스로 상차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

히 기계화된 지게차나 오토-케칭을 실시하는 상차 방법을 채택한 도계장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농장이 지게차나 오토-케칭 기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양계사로 재투자하거나, 리모델링하지 못하면 조만간 계열사와 거래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 계열사의 시설 현대화 수준에 맞도록 농장들도 함께 현대화를 선택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 시설 노후화가 진행된 C, D급 농장의 농장 환경에 맞도록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단열과 급수, 환기 시설이 최우선 과제이며, 출하 작업이 용이하도록 계사 외부 환경도 고려해야 하며,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주변 환경도 고려 대상이다.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변화를 시도하고 다시 비상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치즈를 먹고 기다릴 것인가? 삼계 농장들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